

한계령

양희은

(전주)

Am Am7 Am6 Am(#5) Dm Bm7(b5) E7

5

Am Am7 Am6 Am(#5) Dm Bm7(b5) E7

Am Am7 Am6 Dm

저 산은 내-게-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

F Bm7-5 E7

발아래 젖은 계곡 첩첩 산중

Am Am7 Am6 Dm

저 산은 내-게-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

Bm7-5 E7 Am

내 가슴을 쓸어 내리네

(Ref)

G C Dm Bm7-5 E7

아, 그러나 한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

G C Dm Bm7-5 E7

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물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

Am Am7 Am6 Dm

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

Bm7-5 E7 Am

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

(간주)

(Ref)